

## 북리뷰

# 한반도에서 비폭력의 힘은 가능할까?

황수환\*

주디스 버틀러 저,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파주: (주)문학동네, 2021.

### 1.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갈등과 폭력적 상황이 존재한다. 인간과 인간의 개인적 폭력은 물론 언어, 문화 등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인간과 집단뿐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 폭력도 존재한다.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과 함께 군비증강, 신무기 개발 및 실험 등 위협에 의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적 상황이 존재한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폭력의 역사로 규정된 것은 강자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차별적 형태에 비롯되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군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군비지출은 사상 최고인 2,240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군비지출은 2013~2022년 10년간 약 19%가 증가했다.<sup>1</sup> 코로나19라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sup>1</sup> Dr Nan Tian, Dr Diego Lopes da Silva, Xiao Liang, Lorenzo Scarazzato, Dr Lucie Béraud-Sudreau and Ana Assis,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2*,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pril, 2023,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3/sipri-fact-sheets/trends-world-military-expenditure-2022>> (Accessed May

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군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동북아 국가를 보면 중국이 2021년 세계 2위로 2,93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여 2020년보다 4.7% 증가했고, 일본은 7.3%, 한국의 경우 4.7% 증가했다.<sup>2</sup> 각국의 군비증강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웃국가들 간 군비경쟁으로 인해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협에는 위협적 대응으로, 폭력에는 폭력적 대응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군비증강 현실에 그대로 나타났다. 경쟁과 위협이 전쟁과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위협적인 무기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군비경쟁과 증강만으로 위협을 대처하고 위기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군사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의 상호의존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군비증강을 통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효율적이라 여기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폭력이 상존한다. 그렇다고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해야 하는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후 언제나 개인과 집단에게 커다란 상처라는 흔적이 남는다. 전쟁과 폭력은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직접적 폭력이든 간접적 폭력이든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 건 당연하다. 그 상처는 감정과 논리를 지배하고 신체와 몸을 지배하여 정신적, 육체적 장벽을 만든다. 장벽은 다시 개인과 집단의 단절을 초래하고 차별,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폭력적 상황을 방치하고 체념하기보다는 비폭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평화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러한 지점에서 의문을 갖고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The Force of Nonviolence: An Ethico-Political Bind)』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2. 비폭력의 힘은 무엇인가?

버틀러는 『비폭력의 힘』에서 비폭력은 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의 실천으로 규정

1, 2023).

<sup>2</sup> SIPRI/PEACE MOMO, 『SIPRI YEARBOOK 2022 군비, 군축, 국제안보(한국어 요약)』, 2022, p. 11.

했다. 버틀러는 우리가 폭력적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동조하고 공모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비폭력은 폭력적인 영역에서 윤리적 사안이 되어 폭력이 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선택 가능한 저항적 실천으로 보았다. 공격성의 경로를 바꾸는 방식이 곧 비폭력이라 파악했다.

버틀러는 적개심이나 분노심이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성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비폭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가감정(ambivalence)을 중요시했다. 그녀는 양가감정이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 이론 등과 결합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공격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공존하려는 심리와 연대의 힘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비폭력이 나약하고 무익한 수동성이라는 관점을 거부하면서, 저항적 실천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책임과 같다고 보았다. 충분히 비폭력의 힘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버틀러는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인종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와 차별문제를 극복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힘으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의한 비폭력을 강조했다. 인간사회에 만연한 각종 사회적 불안정과 폭력적 상황에 대해 단순히 너와 나라는 '객체적 존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동체적 삶을 누리는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약한 현실에 상호의존성이라는 관계를 통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비폭력이라 생각했다.

물론 상호의존성은 인간 생활에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착취와 폭력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버틀러는 상호의존성에 의한 평등을 개인 주체의 속성으로 출현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로부터 출현하는 권리로 파악했다. 내가 상대방을 파괴하면 나의 삶 역시 위태로워진다는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폭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공존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간사회의 평화와 공존을 지탱해주지만, 갈등과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양가성이 있다고 보았다.

버틀러는 비폭력의 윤리적-정치적 실천은 단순히 '폭력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긍정될 때 가능하다고 파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폭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활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면 나도 사용한다거나, 나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폭력은 결국 나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의존하고 도움을 주면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인간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이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에게 행해지는 폭력도 나를 향한 폭력이며, 폭력은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 보았다.

버틀러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폭력은 단지 폭력적인 행동이 아닌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거부하고, 비폭력으로 폭력적 사안에 맞서며, 모든 상황에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비폭력은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저항과 변혁의 능동적 힘이라 할 수 있다.

### 3. 폭력적 상황이 만연한 한반도

한반도는 70여 년 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휴전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다양한 폭력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남북 간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갈등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폭력의 가능성 역시 증가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라는 상처를 통해 마음의 분단과 장벽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쌓여 현재는 좀처럼 허물기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우선 남북 간에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체제로 인한 긴장과 불안은 여전하다. 과거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버마 랭군사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하여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 접경지역의 전단지 살포에 따른 위협고조 등 근래에도 남북 간에는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분단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은 물론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폭력의 구조와 이를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정교하게 활용되기도 했다. 북한은 여전히 군사중심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남한 역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심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기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빨갱이, 친북, 중북이라는 미명 하에 구타와 고문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상황에 나타나는 분단폭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체제의 군사화를 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남북한 군사적 대결은 냉전시기는 물론 탈냉전시기에도 여전히 지속되어 군사적 측면에서 냉전분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 간 여러 분야에서 비대칭성이 커졌지만, 유독 군사 부문에서만 철저히 대칭성을 유지하며 갈등이 존재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 중에 있다.<sup>3</sup> 분단체제로 인해 비대해진 군사화 문제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폭력적 갈등상황이 발생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공격을 당하면 백배 천배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폭력적인 태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반대함에도 한반도에서는 폭력적 대응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의 상황을 보아도 폭력적 대응과 방식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상황은 어둡다.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대만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간의 긴장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수 상존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국방비 증가를 통해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국방비 증가를 통해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과 남북한 모두 군사력 증강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4</sup> 모두 힘에 의한 평화 소위 폭력적인 방식에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방어한다는 논리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폭력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내외부적 갈등과 폭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통일폭력 상황이 발생한다면 통일이 되지만 그것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이 전쟁이나 급변사태, 흡수통일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통일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차별

<sup>3</sup> 김병로, 『한반도發 평화학』 (서울: 박영사, 2021), p. 157.

<sup>4</sup> 장철운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9.

과 배제와 같은 구조적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급격한 현상변경으로 인한 지역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5</sup>

#### 4. 비폭력의 힘을 기대하며

한반도에서 통일폭력이 아닌 통일평화를 지향하며 비폭력적 구조를 형성시켜야 한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통과해야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평화공동체 수립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통일평화는 통일보다는 평화에 관심을 가지며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sup>6</sup> 통일평화는 모든 방식과 과정에서 비폭력의 힘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마이클 네이글러(Michael Nagler)는 “비폭력은 가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항상 효과가 있다. 반면 폭력은 가끔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폭력은 수동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천한 비폭력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라고 주장했다.<sup>7</sup> 이들 모두 비폭력적 방식이 폭력적 방식보다 평화를 만드는 데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비폭력의 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비폭력의 힘은 느리거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폭력적 방식이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버틀러는 강조한다.

폭력이 파괴적인 힘이라면 비폭력은 장기간 평화를 만드는 건설적인 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폭력은 당초 인간사회에 존재해 왔지만, 여러 폭력적인 상황들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실천되지 못했을 뿐이다.<sup>8</sup> 역사적으로도 비폭력 상황을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버틀러는 이러한 지점을 반성하며 차별과 배제, 적대 등을 타파하는 비폭력의 힘을 강조한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지만, 비폭력 저항은 폭력의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sup>5</sup> 서보혁, 『한국 평화학의 탐구』 (서울: 박영사, 2019), p. 48.

<sup>6</sup> 위의 책, pp. 48~49.

<sup>7</sup> 김연철·서보혁·황수환, 『평화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22), pp. 134~135.

<sup>8</sup> 위의 책, p. 136.

서도 갈등과 적대에 놓인 상황을 억제하여 폭력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다. 폭력은 힘이 강한 자의 정당하고 당연한 사용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폭력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의 비폭력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비폭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

## 참고문헌

- 김병로. 『한반도평화학』. 서울: 박영사, 2021.
- 김연철·서보혁·황수환. 『평화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22.
- 서보혁. 『한국 평화학의 탐구』. 서울: 박영사, 2019.
- 장철운 외.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Dr Nan Tian et al.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2*.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pril, 2023.
- SIPRI/PEACE MOMO. 『SIPRI YEARBOOK 2022 군비, 군축, 국제안보(한국어 요약)』. 2022.